

##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등장 배경

### 페르시아 시대(538~333년) ⇨ 헬레니즘시대(333~63년)

팔레스티나는 페르시아의 점령(기원전 538년~) 후 마케도니아 제국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기원전 333년 식민 통치를 받게 된다.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지배 하에서 누렸던 종교적인 자유를 그대로 누릴 수 있었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열병으로 사망하자(323) 그 유언에 의해 영토는 막료장군들에게 나누어졌다. 그리스 본토를 중심으로 한 왕조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리아에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세워진다. 이스라엘은, 두 왕조의 세력 크기에 따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또는 셀레우코스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스라엘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로마와 전쟁이 일어나, 셀레우코스 왕조가 참담하게 패하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 5천 탈렌트를 로마 측에 지불하게 된다. (참고로 1탈렌트는 6,000 데나리온으로, 16년 6개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이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다 전역에서 각출된 1년 세금이 고작 800탈렌트에 불과했다고 한다.)

안티오코스 3세는, 이를 채우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의 재산을 강제 압류했으며, 그의 왕위를 이은 안티오코스 4세는 더욱 그 수위를 높였다.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인두세, 제왕세, 성전세와 같은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마을 전체를 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하고, 방화와 학살을 자행했다. 또한 칙령을 발표하여 시리아의 법과 관습을 추종하게 하고, 그리스 신과 여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였다.

저항하는 이들에게 취해진 것은 전대미문의 박해였다. 아기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형 당했고, 부정한 음식에 손대기를 거절한 많은 이들은 죽임을 당했으며, 그 외 여러 이유로 잔인한 고문을 당하여 죽어간 이들도 부지기수였다.

무장봉기는, 맨 처음 하스모네 일가인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 마타티아스에 의해 촉발되었고 후에 하시드인파 사람들과 합류했다고 전해진다. (☞ 마카베오 상권)

‘하시드인’이라는 말은 ‘경건한 자들’, ‘율법에 충실한 자들’을 의미한다.

민중봉기의 발단은 제사장 마타티아스가 살고 있는 모데인이라는 마을에 악명 높은 칙령이 내려지면서 시작된다. 이 칙령을 선포하기 위해 마을에 도착한 관리는, 원로인 마타티아스가 이방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데 앞장서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는 이 명령을 단호히 거절했고, 마타티아스는 이를 따르려는 한 유대인을 죽이고 그 관리마저 죽여 버린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다섯과 그를 따르는 열성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구릉지대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하시드인파 사람들을 만나 그들 모두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게 된다. 봉기를 주도한 마타티아스는 봉기 2-3개월 만에 심한 과로로 사망하였고. 그는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잘, 요나탄이라는 다섯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임종 전에 셋째 아들인 유다에게 자신의 영도권을 물려주었다.

**유다(166~160년 통치)**는 마카베오(쇠망치라는 뜻)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무장봉기를 전면적인 독립전쟁으로 전환시켜 놓았기에 이 전쟁의 이름을 그의 별명을 따라 ‘마카베오 항쟁’이라 부른다. 유다가 이끄는 이 게릴라 부대는 셀레우코스 군대를 철저히 격파시켰고 다시 새로운 제단을 세워 성전이

모독된 달로부터 꼭 3년이 되는 기원전 164년 12월에 성전을 다시 봉헌하였다. 그 후 유대인들은 이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하누카’(봉헌이라는 뜻)축제를 지내게 되었다.

**요나탄(기원전 160~143년 통치)**은 독립군 사령관직에 만족하지 않고, 다윗 시대 이후 대대로 차독 가문이 맡아 온 대제사장직까지 겸직하는 과욕을 부렸다. 물론 셀레우코스 왕조 쪽에서 수락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그의 뒤를 이은 **시몬(기원전 143~134년 통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민중봉기 처음의 정신과는 달리 셀레우코스 왕조를 섬기며, 유대인들에게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 하려고 고심하는 전략가로 변질돼버린 것이다. **결국 마카베오 전쟁은 유대인들에게 독립이 아닌 하스모네 일가의 통치시대만을 등장시켰을 뿐이다.**

요나탄과 시몬이 대제사장직까지 독식하고 정치적인 방향으로만 흐르자, 하시드인파 사람들은 점차 그들이 하는 일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 모였던 하시드인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녔던 고유한 특성대로 분리되었다. 여기서 생겨난 종파가 바리사이파와 에세네파이다. 이때 이미 사두가이파가 있었으니, 유대교 내에서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진 세 개의 종파가 존재하게 된 셈이다. 이들 세 종파는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결국은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오직 율법의 권위 하에서 살아 갈 것을 다짐하고 있었지만, 하느님의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각기 다른 견해 들을 가지고 있었다.

###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그룹 및 제도 - 사두가이, 바리사이, 율법학자, 에세네, 사제, 레위인, 대제사장, 최고의회**

#### **<사두가이>**

귀족들,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는 고위 제사장들, 부유한 재산가들이다. 매우 실리적인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세력을 불문하고 타협적인 입장을 취했다.

헬레니즘 문화를 숭상하고, 하스모네 왕가 및 로마 정권과도 결탁함.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정치적인 교란 상태 및 변혁이었다.

율법에 대한 입장은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곧 모세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구전된 율법의 계율은 전혀 인정하지 않음. 부활, 천사, 사후의 상벌 문제, 묵시론적인 사변과 같은 새로운 개념들을 거부.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합법적인 성전기구의 감독 하에서 제사를 엄숙하게 드리는 것, 의식과 제물봉헌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 **<바리사이> - ‘구분하다’라는 뜻.**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어떤 종파보다도 지나치리만큼 엄격했다. 부활신앙, 사후의 상벌, 천사와 같이 새로 도입된 개념들을 받아들였으며, 사두가이들과 달리 주로 평신도들이었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도덕적으로 성실하여, 백성들로부터 선망과 존경을 얻음. 유대교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함.

사두가이와 달리 모세의 율법 뿐 아니라, 구전된 율법을 그대로 전승하며 발전시켜나감.

후에, 이것이 ‘미쉬나’로 편찬되었고, 결국 ‘탈무드’로 집대성되었음.

#### **탈무드**

기원전 3백 년 전부터 서기 5백년까지, 유대교 랍비들에 의해 구두로 전해진 구전율법.

중심본문은 ‘미쉬나’.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은 ‘게마’라고 함.

유다인의 종교 및 모든 생활 전반에 관한 가르침으로서, 성문율법인 구약성경과 함께 바리사이에 의해 주도된 전통 유대교의 경전.

**<율법학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

바리사이의 지도자들이 율법학자들이었고, 많은 율법학자들이 바리사이에 속해 있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를 같은 그룹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 율법학자 중, 사두가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에세네파>**

이들은 하시드인파 일원으로 민중봉기에 참여했지만 요나탄이 차독계열 가문도 아니면서 대제사장직을 차지한 것을 인정할 수 없어 극한 투쟁을 벌였다. 에세네파의 지도자는 박해를 피해 소수의 추종자를 데리고 사해 근처 꿈란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 은둔생활을 하게 된다. 이들을 두고 ‘꿈란 수도자’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바리사이파보다 더 엄격히 율법을 지켰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세상과 분리된 채 극히 제한된 교류만을 유지했다. 묵시문학적인 종말론, 율법중심의 근본주의, 선민 주의적 배타의식, 이런 점들이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임박한 종말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곧 종말전쟁이 일어나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게 되고 그 결과는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만일 빛의 아들이 이긴다면 메시아를 모시고 종말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라는 상상에 끊임없이 젖어 있었다.

**<사제>**

사제의 뿌리는? 멜키체덱, 아론

☞ 아브람과 멜키체덱(창세 14,17-20), 아론의 아들들(민수 3,1-3)

**<레위인>**

☞ 레위인들의 임무(민수 3,5-10), 레위인들을 선택하시다(민수 3,11-13)

**<대사제>**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뽑힌 대사제는 성별 기름을 머리에 받고 직무를 맡아 예복을 입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레위 21,10)

다윗 시대 이후, 차독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맡아옴(열왕기 상 1,32-40).

**<산헤드린>**

유배시기 이후에 생긴 유대인 최고회의. 대사제를 포함한 71명의 원로들로 구성.

정부의 의회 기능을 지니며, 고등법원의 역할을 함.

산헤드린의 결정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모든 종교적인 문제들과 율법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루었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로마시대(기원전 63년 이후) 그리고 헤로데 가문의 등장**

기원전 64년에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시리아를 속주로 만들고 팔레스티나도 시리아 속주에 포함시켰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로마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팔레스티나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면서

하스모네 왕가는 몰락하게 되고 헤로데 가문이 통치하게 된다. 신약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헤로도도 바로 이때에 등장한 인물이고, 세리니 호구조사니 하는 용어들도 이 시대에 등장한 것들이다. 헤로데 가문은 이두매 출신이었다. 이두매인이란 유다 왕국 남쪽에 인접한 에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스모네 왕가의 요한 히르카누스 치세 때(기원전 134-104년) 유다에 합병되면서 거의 유다 백성의 일부로 간주된 이들이었다. 그러므로 순수 유대인이 아닌 ‘반쪽 유대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형제인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틀로스 2세의 무력 충돌 때 히르카누스 2세는 이두매아의 총독이던 안티파테르의 도움을 청했고, 또한 안티파테르의 권고를 받아 나바테아인들의 지원도 청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틀로스 2세는 각각 막강한 힘으로 팽창하고 있던 로마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는데, 기원전 63년에 아리스토틀로스 2세가 군사력을 움직이자 폼페이우스가 개입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다. 그는 지성소까지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모독하였으나 성전을 파괴하지는 않았다. 히르카누스 2세는 대사제로 임명되었지만(기원전 63~40), 임금이라는 호칭은 포기해야 했고 이제 팔레스티나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여기서 실속을 챙긴 사람은, 히르카누스 2세를 지지했던 안티파테르였다.

당시 로마도 내란으로 어수선하였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안티파테르는 적절한 충성심을 보여 계속 신임을 얻었다. 그래서 황제 카이사르에게서조차 로마시민권을 받았고,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안티파테르는 이제 모든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하여 로마의 편에 서서 공개적으로 팔레스티나에서 그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갔다. 헤로데는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 마사다와 같은 요새 건설과 식민시설 설치,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세금을 징수했으며, 로마 제국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의 왕’이라는 존칭을 받기도 하였다. 헤로데 가문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은 이 헤로데 밖에 없었다.

### 헤로데 가문

이두매 출신(유다 왕국 남쪽에 인접한 에돔 사람) -

하스모네 왕가의 요한 히르카누스 치세 때 유다에 합병, 거의 유다 백성으로 간주.

안티파테르(헤로데 父) - 로마에 아부, 실권 장악. 로마 황제 카이사르로부터 로마 시민권 받음, 총독 임명

안티파테르 암살 후, 헤로데가 ‘왕’으로 등극.

헤로데 왕 사후, 아들들이 이스라엘 통치

헤로데 안티파스 - 갈릴래아, 베레아 통치 - 39년에 파직

아르켈라오 - 유다, 사마리아 통치. 10년도 못되어, 로마로부터 파면.

헤로데 필립보 - 북동부 통치 - 서기 34년에 죽음.